

늘 이용자와 함께하는 도서관을



글 | 김 동 령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서울특별시립양천도서관 관장
drki1@sen.go.kr

텍사스대학 오스틴캠퍼스에서 도서관사를 가르쳤던 도널드 G. 데이비스 주니어는 『도서관의 탄생』이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도서관은 인류의 집단적인 기억이며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선조가 후대에 알리거나 계몽하기 위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화소설과도 같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은 다음 세대가 이 도서관의 내용물을 이용할 것이라는 신념의 결과물”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십 세기에 걸쳐 도서관은 책을 수집·보존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 형성과 영감을 축적해 온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서관이 한 국가의 지식 정보 능력의 척도가 되어 온 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을 것이며 여러 관종의 도서관 중 특히 공공도서관은 오랜 시간동안 계층, 학력, 지역, 인종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는 지적 창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에페수스 유적지에 셀수스(celsus)도서관 터가 있는데 이는 독서광인 고대 로마 아시아 총독인 셀수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하여 지은 도서관으로 묘지 위에 도서관을 짓고 맞은편에 대형 목욕탕을 지어 도서관과 목욕탕 사이를 비밀 통로로 연결하여 책을 읽다가 피곤하면 목욕을 하였다는 기록과 고대 로마시대의 황제들은 궁전이나 신전 이외에도 공공 목욕탕에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및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공공도서관은 인류 탄생 초기부터 목욕탕만큼이나 친숙하고 편안하며 늘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 온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늘 이용자 곁에서 이용자와 함께 해 온 공공도서관은 점토판·파피루스 등의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 거대 판형에서 소형의 페이퍼 북으로, 두루마리에서 코덱스 형태를 거쳐 전자책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 변화에 대처해 왔으며 취학 전 어린이의 읽기 지도를 통한 아동의 능력계발과 남성에게 비해 교육기회가 적었던 계몽기 여성의 사회교육기관, 지역 내 평생교육지원센터, 문맹자를 위한 문해 교육기관, 장애인의 지식정보제공과 다문화 가족의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서비스를 시민·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공공도서관은 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지식정보 가치를 생산·유지·발전시키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늘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가 있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구성하는 4대 요소인 자료, 시설, 직원, 이용자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수용하기도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유지·발전시켜 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과 전자책, 웹DB, 전자저널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의 생산·유통·보존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광범위한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수용·발전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공공도서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의 공공도서관 패러다임의 재창출을 준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도서관 분야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변화와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거나 논의하면서 시설과 자료, 직원(사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제언과 충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늘 공공도서관의 중심에서 공공도서관과 함께했던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여기저기 못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 명감독이자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함께 작업하고 작품에 출연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이 자랑하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다. “동서냉전으로 기후를 무기로 가동하고 예상치 못한 위력의 기상이변으로 새로운 빙하기가 오면서 모든 것이 썩썩 얼어붙은 지구.....” 인류의 대부분은 눈과 폭설, 살인적인 추위에 살아남지 못하고 운 좋게 살아남은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생존자들은 설국열차에서만 생존이 가능

하고 그들은 계층, 직업 등 다양한 이유와 그들이 처한 환경에 의하여 갈등과 대립, 탐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미래에 설국열차의 장면처럼 빙하기로 인하여 또는 극심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사막화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시대가 온다면 공공도서관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도서관은 과연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도널드 G. 데이비스 주니어가 말했던 “모든 도서관은 다음 세대가 이 도서관의 내용물을 이용할 것이라는 신념의 결과물”이라는 논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전자책의 물결 속에서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을, 계약직 사서와 도서관 위탁운영의 움직임 속에서 사서 없는 도서관(Librarianless Library)을 걱정해 왔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왔던 것처럼 이용자 없는 도서관(Userless Library)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용자 없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서관인들은 지금부터 미래의 변화

시설로서의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새로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재가공하여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늘 이용자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유기체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함으로써 랑가단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5법칙인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다’라는 명제에 부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설로서의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새로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재가공하여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늘 이용자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유기체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설국열차의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영원히 이용자 곁에서 숨쉬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